



지난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에서 강운태(오른쪽에서 두번째) 후보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왼쪽부터 박준영(맨 왼쪽)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과 정세균(맨 오른쪽) 대표가 후보 선출 결과를 발표한 뒤 이용섭·정동채·강운태 후보의 손을 맞잡고 배심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주 광주시장 후보 강운태 선출

이용섭 후보에 0.45%P 차 박빙 승리

배심원 평가 열세 당원지지로 뒤집어

6·2 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강운태 의원이 선출됐다. 강 의원은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에서 37.80%의 총 득표율로, 37.35%를 획득한 이용섭 의원을 0.45% 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극적으로 당선됐다. <관련기사 3·4·5면>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은 24.85%를

얻어 3위를 했다. 강 의원은 이날 시민배심원단 평가에서는 전체 유효투표수 298표 중 86표를 얻어 28.90% 득표율을 기록하며 3위에 그쳤으나,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46.70%를 얻어 평균 득표율 37.80%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이 의원은 시민배심원단 평가에서 124표를 획득해 41.60%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으나,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33.10%로 2위에 그치면서

평균 득표율 37.35%로 2위를 했다. 정 전 장관은 시민배심원단 평가에서 29.50%(88표),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20.20%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강 의원은 시민배심원단 평가에서는 열세를 보였지만,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를 극복하고 후보로 선출되는 영광을 안았다. 강 의원이 지난해 말부터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 왔던 점에 비추면 이날 경선 결과는 광주시민의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후보로 선출된 뒤 소감 발표를 통해 "당원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2012년 정권창출 교두보를 광주에서 만들겠다"며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이 이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6·2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 정용화 ▲국민참여당 이병완 ▲민주노동당 장원섭 ▲진보신당 윤난실 ▲무소속 정찬용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본선을 치르게 됐다. 이날 민주당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에 참석한 시민배심원단은 애초 배심원단으로 선정된 384명 중 77.30%인 297명이었다. 배심원단 중 중앙당이 선정한 외지 배심원단은 전체 192명 중 85.40%인 164명, 광주 현지 배심원단은 전체 192명 중 69.30%인 133명이 각각 참석해 외지 배심원단의 참석률이 현지배심원단보다 높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준영 "주승용·이석형 추가등록 안된다" 전남지사 경선 무산되나

민주당 최고위 오늘 결정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무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12일 오전 전남도지사 경선후보 추가 등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일한 후보 등록자인 박준영 예비후보 측이 추가등록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11일 박준영 후보 측 관계자는 "한 번 후보 등록 시한 연장을 양해해 주고 경선 요구 조건을 한 가지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가등록과 경선물 수정요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석형 예비후보와 주승용 의원은 경선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언제까지 두 후보에게 중앙당이 끌려다녀야 하나"며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박 후보 측의 강력한 입장은 12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에 전달될 것으로 보여 최고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최고위원이 '중앙당이 경선 후보들에게 휘둘러 수시로 원칙을 변경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추가 등록이 만만치 않게 될 것이다. 물론 대부분 최고위원은 가능한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경선 실시를 위한 박준영 후보 측의 막판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박 후보도 그동안 중앙당의 입장을

비교적 존중해 왔다는 측면에서 최고위원회 측에서 양해를 구할 경우 단번에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따라서 박 후보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을 '향후 경선 불협상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제는 박 후보가 마지막까지 후보 추가 등록 인정을 거부할 경우 최고위원회가 독단으로 추가 등록을 강행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이와 관련, 중앙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최고위가 독단으로 추가 등록을 할 경우 법적인 효력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당 지도부가 박준영 후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천안함 빠르면 17~18일 인양

두번째 체인 연결 시도... 조류 빨라져 변수

천안함 인양작업이 11일로 작업개시 8일째를 맞았다. 함이 부른 90mm짜리 체인 3개 가운데 1개가 연결됐고, 11일 2번째 인양용 체인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함수 부분의 경우 인양용 체인에 앞서 연결된 유도용 3인치 와이어 2개를 인양용 90mm 체인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민간 인양팀은 함미 부분에 3개, 함수 부분에 4개의 인양용 체인이 연결되면 각각 2천200t급, 3천600t급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물 밖으로 끌어올린 뒤 바지선에 실을 계획이다. 함미·함수 인양작업은 함체 밑 개터널을 뚫는 대신, 첫번째 연결한 체인을 당겨 함체를 약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나머지 체인을 연결할 틈새를 확보키로 함으로써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조류와 기상 상황 등 그날 그날 인양작업의 성과를 좌지우지하는 현장 작업 여건이다. 조금씩 끝나고 오는 14~17일 '사리'가 다가오고 있어 물살은 다시 빨라지고 있다. 10일 최대 1노트였던 사고해역의 유속은 11일 최대 3.6노트로 빨라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애초 오는 15일까지 인양작업을 마친다는 목표를 수정, 이르면 오는 17~18일께 함체를 인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간 인양전문가들은 현장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양에 필요한 절대 작업시간을 채우지 못해 인양까지 걸리는 기간이 이달 말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사고 민·군 합동조사단의 민간 공동조사 단장에 윤덕용(71)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미국 MIT 물리

학 학사와 미국 하버드대 응용물리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미국 웨인 주립대 재료공학과 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장과 일본 도쿄대 초빙교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빙연구원을 거쳐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윤 단장은 현역 장성인 박정기 합참 전력발전본부장(육군중장)과 공동 조사단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연합뉴스

알림 즐기세요, 현대미술의 세계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 연중 강좌 제2탄

김성희 홍익대 부교수 '북경 따산즈 798지역 예술시장'

*선착순 100명·무료

16일(금) 오후 3시 광주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장 光州日報社

학교실업 56주년(1954~2010)

민음, 소망, 사랑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및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김고성 추모콘서트

바른 양에 깨닫고 보는 것에 대한 기억...

2010. 4. 18 pm 2:00, 6:0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1588-0766